



&lt;소설가 김주영씨&gt;

&lt;유인택 대표&gt;

&lt;가수 보아&gt;

## 김주영·유인택·보아...‘빛나는 예술인들’

문화훈장·문화예술상·젊은 예술가상 수상자 선정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 태계한 원로 한국부용가 송범(본명 송철교)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2007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선정, 16일 발표했다.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로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사인 기획시대의 유인택 대표 등 6명이, 부상 500만원을 주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로는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등 9명이 각각 선정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화훈장 ▲은관=김주영(소설가), 고 이강덕(전 중요무형문화재 1호 중요재료 명예보유자), ▲보관=육병일(초대 점자도서관장), 이형표(영화감독), 이건용(작곡가), 석정 스님(본명 일석정,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박정자(연극인), 제기준(공연 연출가), 이두호(만화가), 김정만(국악인) ▲옥관=이원홍(전 흥행문화원 이사), 카네코 가즈시게(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장), 오기수(건축가), 한창조(조각가), 파트리스 드 라 브리에(미술평론가), 벤하 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 정재만(전통무용가), 고두심(연기자), 정재우(공주문화원장) ▲학관=진태옥(铯선지자이너), 이순희(한국음악재단 회장), 김영섭(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지회장), 류복현(광산문화원장), 김성환(연기자)

◇문화예술상 ▲문화일반=송효상(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문화=이시영(시인) ▲미술=이태길(목우회 이사장) ▲음악=콰르텟 21 ▲연극·무용=김복희(한국대 무용과 교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화=손택수(시인) ▲미술=이형구(조각가) ▲음악=이승정(첼리스트) ▲전통예술=송은주(국악인) ▲연극=이기도(연극연출가) ▲무용=김형남(무용가) ▲영화=김태웅(감독) ▲디자인=박석훈(디자이너)

## ‘탱크’ 최경주 18일 탱크부대 방문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18일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전차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14일 끝난 제23회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이날 자신과 별명인 ‘탱크’에 걸맞은 전차대대를 찾아 실제 전차에 탑승해 ‘탱크와 탱크의 만남’을 연출해 보일 예정이다. 최경주는 기념촬영에 이어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모형 전차를 기념품으로 전달받을 계획이다.

## 언론중재위 ‘광주지방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주관하는 광주지방토론회가 ‘언론중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6일 광주프리도호텔에서 열렸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이준순씨 아들 김상훈군 조향(주여수교육청 관리과장)씨 딸은경양=21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 교직원공제회관 3층 예식홀.

▲이정웅씨 차남 광재(광주드림기자)군 위운남씨 차녀 이은주양=21일(일) 오후 1시20분 경복궁 웨딩홀 2층 고운홀. 피로연 21일(일) 오후 3시 자취.

▲이하림(광주시 동구청 경제과장)씨 장남 경민군 조기권씨 장녀 지선양=21일(일)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김정인(조선대 부속고교 교장)씨 장군 김순조씨 장녀 정한양=20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정동운(전 도의원)씨 장남 혁(사회복지사)군 김상호씨 장녀 희정

(기독교 신문사)양=20일(토) 오후 1시 서울 성공회대 채플실.

▲이노균씨 장남 중명군 황금철(전 목포교육청 관리과장)씨 장녀 정설영=20일(토) 오후 1시40분 삼록예식장 3층 무궁화홀.

▲한광섭(덕평산업개발㈜ 대표·전 국민은행 광주기업금융 지점장)씨 차남 휘호군 양주현씨 차녀 민정양=21일(일) 낮 12시40분 예별루션웨딩홀 3층 컨벤션홀.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빌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해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비리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유영은) 월례회=17일(수) 오후 7시 일정.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복성중 제 18회 동창회(회장 노시혁) 월례회=18일(목) 오후 7시 전기부. 233-2337

▲대성초교 19회 동창회(회장 하호기) 모임=19일(금) 오후 7시 일 미식당. 016-651-9772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김윤세) 임시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9일(금) 오후 6시30분 유토피아 웨딩홀 4층 대연회장. 369-6882~3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신우식) 친선체육대회 및 부고인의 밤=20일(토) 오후 6시30분 메리어트 웨딩홀(부고인의 밤). 21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친선체육대회).

▲겸백중 4회 동창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20일(토) 오후 5시 히딩크호텔 6층 사우트데일.

▲광주교대 부속초교 제 39회 동창회 모임=20일(토) 오후 6시 융릉도 신물회. 372-6191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양해인)

총동문 가족 큰잔치=21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382-9648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김규룡) 제 32차 한마음체육대회=21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대운동장. 511-1946

▲서강고 제 6회 총동문회(회장 이민석) 기록 한마당=21일(일)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 228-2913

## 종친회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18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 010-6688-8983

▲진주정씨 진양군 충장공파 대종회 사인정 복원 준공식=20일(토) 오전 11시 학평군 월야면 월악리 대동 은행나루뜰.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산 향사봉례(시향)=24일(수) 오전 9시 광천동 터미널. 232-6400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양해인)

## “고향 위한 광주 사람들 열정, 세계 최고죠”

## ■ 광주체전 자원봉사자 총괄 지휘한 김형남 자원봉사센터 소장

“고향을 위해 뛰치는 힘은 광주시민이 세계 최고일 겁니다.”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제88회 광주체전에서 3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총괄 지휘한 김형남(여·52)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16일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열심해 쥐 성공적인 체전이 된 것 같다. 체전이 끝난 뒤에도 타 지역 선수단으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이번 체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 소장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모두들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친절 광주’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뛰었다”면서 “광주시민들의 단결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체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에서부터 교육, 배치까지 모든 업무를 진두 지휘했다.

지난 2월말 자원봉사자 모집에 들어간 김 소장은 한 달만에 3천명 모집에 성공했고, 6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나섰다.

그동안 타 시·도의 경우 전체 자원봉사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단 한차례만 교육하는 게 관례로 돼 있었지만 김 소장의 생각은 달랐다.

“한꺼번에 3천명을 교육하면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래서 4회로 분산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시켰는데, 큰 도움이 된 듯 합니다.”

## 봉사자 3천명 분산교육 체전 성공 이끌어

## 굵직굵직한 대규모 행사 치러낼 자신 있어

김 소장은 매회 1천명씩 3회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회는 그동안 교육에 빠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교육에 참석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참석률은 100%에 가까웠다고 한다.

친절한 손님 맞기가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이번 체전에 참가

한 타 시·도 선수단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에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교육 효과가 현장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 것이다.

김 소장은 “이번 광주체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광주에서 굵직굵직한 대규모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면서 “언제, 어떤 행사라도 광주에서만 열린다면 광주자원봉사자들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벽진기자 lucky@kwangju.co.kr

## 老스승을 위한 중년들의 ‘보은여행’

## 광주일고 22회 동창회 졸업 30주년 기념

졸업 30주년을 맞은 광주일고 22회 동창회(회장 김병석 전남대 교수)가 은사들을 위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계획해 왔다.

이번 행사는 맹을 맡고 있는 민영돈(49·조선대 의대 교수)씨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상해를 다녀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12명의 선생님 중 한 분이 작고 하셔서 이번 여행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의 승승 사랑을 보여주는 보은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1년 12월25일 이들의 3학년 때 담임 교사 12명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3박4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성사시킨 것. 당시 이 행사는 광주일보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사진)

이들이 제주도 보은여행을 기획한 것은 고3 때 담임 교사들이 모임을 조직해 근본적 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나서부터다. 교사들이 따로 모임을 만든 이유는 이를 22회 졸업생이 고교평준화 이전, 성적에 의해 입학한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

또 22회 동창생들은 졸업 이후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은사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올해는 은사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20일, 30주년 기념 톱커밍데이 행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1일에는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열리는 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한다.

1976년 당시 3학년 6반 담임이었던 이돈배(67·광주 남구 진월동)씨는 “22회는 특히 정이 많아 어느 기수보다 선배를 사랑하고 후배를 이끄는 마음이 큰 것 같다”며 “이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벅찬 감동과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제 7회 고바우 만화상에

## 만화가 허영만씨 선정

제 7회 고바우 만화상 수상자로 만화가 허영만(60) 씨가 선정됐다.

고바우 만화상 운영 위원회는 ‘식객’, ‘타짜’, ‘사랑해’ 등의 인기작으로 한국 만화를 살피운 허영만 씨를 올해의 수상자로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노래인생 50년’ 최희준씨

## 제 38회 동인 문학상에

## 소설가 은희경씨 선정



노래인생 50년을 맞은 ‘하숙생’의 원로 가수 최희준(71·한국 대중음악연구소 이사장)씨가 16일 옥관문화훈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씨는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진고개 신사·빛과 그림자·‘종점’·길 읽은 철새